

# 광주 우치공원 방문객 두배 늘었다

### 동물원 무료입장 효과·'어린이 드라이빙 스쿨' 등 시설 확충

한때 논쟁에 휩싸이기도 했던 광주 우치공원이 민선 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동물원 무료입장' 효과 등에 힘입어 광주를 대표하는 여가 명소가 재탄생하고 있다.

매년 감소추세에 있던 방문객은 두배 이상 늘어났으며, '빛고을 광주'의 야간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우치공원 내 518만개를 이용한 '빛 공원'이 새로운 명소가 떠오르면서 우치공원의 제2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우치공원측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자동차 벨리' 도시 광장을 컨셉으로 한 가정 '어린이 드라이빙 스쿨' 등 다양한 체험교육 시설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2월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대형 동물원인 우치동물원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 지난 5월 무료로 전환한 결과, 한달 만에 9만여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 4만여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평일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생태체험학습을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단위 나들이객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와 상생 협력을 강화한 전남과 전북지역에서도 단체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우치공원측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억원을 들여 가족동물사, 열대조류관 등을 재단장한 데 이어 올해 원숭이 우리와 코끼리 방사장 등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설했다.

시는 특히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형 동물원을 조성하는 동물복지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현재 시설개

선비로 15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상태다. 시는 지난 20여년간 사실상 방치된 우치공원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광주패밀리랜드측은 최근 시민에게 야간 불거리 제공 등을 위해 공원 내 잔디광장 일원에 LED 518만개를 이용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전구 518만개는 군부 독재에 맞선 1980년 5월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도 담았다는 게 패밀리랜드측의 말이다.

우치공원 옆 대아저수지에 오리보트 등이 배치돼 시민들의 무더위를 해소하는 여가시설로 인기다.

이 밖에도 우치공원 내에 오는 7월 오픈을 목표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인 가정 '어린이 드라이빙 스쿨'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선도 도시이자 문화도시인 광주의 교통문화가 최약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 교육 시설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 문화 교육은 부모 등 어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설 개소 후 광주의 교통 문화 개선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원기 광주시 공원복지과장은 "동물원 무료 개방으로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우치공원도 시민 중심형 생태체험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야간 빛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을 추가해 휴식과 쉼터의 명소가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국도로공사, 광주 U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한국도로공사가 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윤석 광주 U대회 사무총장과 박상욱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은 최근 U대회 조직위 사무실에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U대회 조직위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광주·전남 570여km 구간의 각종 시설물을 대회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조직위는 광주·전남 98개 고속도로 교통광고판에 대회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각 영업소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이다. 백양사·곡성 등 22개 휴게소에는 키오스크(정보 단말기)를 통해 홍보 동영상도 상영된다.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휴게소 등 도로 표지판을 정비하고 대회 기간 방문객들의 교통 소통을 위해 동림IC에 소형차 전용 갓길 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측은 휴게소와 영업소를 통해 직원 1가족 1경기 관람과 입장권 기부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충장동 주민센터 기공식

광주 충장동 주민센터 신축 기공식이 지난 1일 열린 가운데 유정현 광주시장, 박주선 국회의원, 동구의원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충장동 주민센터는 민원실, 프로그램실, 다목적회의실 등 지상 3층으로 오는 10월 준공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 본청 등 88개 부서 대상 청렴 컨설팅

### 시 감사관실 주관 내달 2일까지...문제점 개선책 마련

광주시는 "7월 2일까지 한달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88개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실시되는 청렴컨설팅은 부서별 업무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며, 각 부서와의 소통

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비롯한 청렴해피콜 민원 점검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과 개선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청렴도 측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2015년도 청렴도 측정 계획 등을 전파해 내부 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 및 대신 민원 만족도 등을 높여나가는 방침이다.

시는 또 반부패청렴 활동과 관련된 부서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서별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3200여명 전 직원과 공사·용역 계약체결 업체, 시 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았으며,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청렴교육 실시, 실국장 청렴도 평가, 부패취약민원에 대한 청렴해피콜 실시, 공직자 부조리 감시를 위한 시민감사관 확대 운영 등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마련했다.

박옥창 광주시 감사관은 "이번 청렴컨설팅이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통 손 모내기 체험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센터 내 농지에서 개최한 전통 손 모내기 행사에서 시민 200여명이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시·도 장애인 복지 수준조사

### 광주시 4년 연속 '우수' 등급

광주시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는 '2015년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수준 조사'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주시는 총 5개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자립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을 얻었다.

이번 조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17개 시·도 의회 의원,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을 비교·분석해 지역격차 해소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3월부터 5월까지 5개 영역 40개 지표를 조사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2일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 먹거리 X파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김진 채널A기자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

http://tv.ichannelA.com/culture/xfile  
02 2020 3333~4